제36회 포교대상 시상식…대상에 돈관 스님

조계종 포교원, 12월 4일 개최
"전법 주인공들 솔선수범 감사"
돈관 스님, 나눔 기금 2000만원
북천 스님도 포교기금 500만원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포교원이 12월 4일 '제36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을 열고 공로자들을 치하했다.

불교 포교 현장 공로자들을 치하하는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은 12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36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돈관 스님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대상을 수상한 돈관 스님은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주지 소임을 역임하며, 템플스테이와 박물관 개원을 비롯한 가람정비와 불교대학 개설을 통한 교육포교에 진력했다. 학교법인 '동곡학원'을 설립해 선화여자고등학교를 지역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과 건학위원장, 사단법인 상월결사 제2대 이사장으로서 미래불자 양성에도 힘썼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 각 세대 눈높이에 맞춘 지원은 물론 장학제도를 통해 2000명의 불교계 장학생을 양성했다. 특히 동국대 29개 단과대학에서 불교동아리 창립을 견인하고, 불교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 수계법회(서울권 2500명, 경주권 1800명)를 봉행하는 등 종립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가치관이 인재양성에 자양분이 되는 바탕을 마련했다.

돈관 스님은 "'시대에 따라 종교는 변화해야 한다'는 글귀를 가장 좋아한다. 불교도 대중불교, 생활불교, 사회불교로 나아가야 한다"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불교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선명상을 보급하고, 어린이·청소년·대학생·청년불자·일반 재가불자 모두가 함께하는 사부대중의 불교가 돼야 한다. 또 불교가 사회와 어울릴 수 있도록 인재를 키워내고, 소외 이웃의 아픔도 보듬어야 한다. 그런 불교를 만들기 위해 소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돈관 스님은 포교대상 상금 1000만원에 추가 기금을 보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총 2000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돈관 스님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동국대학생 200여 명이 시상식장을 찾아 훈훈함을 더했다.

총무원장상인 공로상은 경국사 주지 일운 스님(판교노인종합복지관장)과 정재화 전 만월사 신도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운 스님은 "출가해서 시줏돈으로 밥먹고 공부했다. 이 빚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며 "활동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 늘 자비 충만하고 행복하시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포교원장상인 원력상은 구암사 주지 북천 스님, 사단법인 동련 사무총장 능후 스님, 순윤홍 교정교화전법단 사무과장, 이현숙 포교사단 부단장, 이명숙 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 문민경 봉선사 청소년법회 지도교사가 받았다. 북천 스님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는데, 큰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열심히 하란 뜻으로 알고 더 성심껏 포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능후 스님도 "초심으로 돌아가 정진하겠다"고 했다.

시상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중흥과 미래인재 양성에 진력해 온 돈관 스님과 수승한 원력으로 포교 현장에서 헌신한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그동안 (수상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많은 분을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로 이끌어 줬다"며 "그렇기에 당연히 종단적으로 함께 축하하고 공덕을 나누는 일은 더없이 뜻깊고 즐겁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전, 포교대상 원력상 수상자 북천 스님(구암사 주지)은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을 만나 포교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북천 스님은 무료급식소 '나눔의 집 나마스테'를 설립·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한 한끼를 선물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스리랑카 학인스님 100명에게 매달 3만원씩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진우 스님 취임 800일 108배…"전법 포교 진력"

12월 5일, 취임 800일 맞아
조계사 대웅전서 108배 정진
"전국민 불자될 때까지 진력"


취임 800일을 맞은 진우 스님이 12월 5일 108배를 하며 전법포교를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800일을 맞은 진우 스님이 서울 조계사 대웅전 법당에서 108배를 올리며 전법포교를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이날 108배 후 불자들의 축하 속에 소참법문하며 역점 불사 완수를 통한 전법포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총무원장 임기 4년, 일수로 1460일 중 800일이 됐으니 앞으로 646일정도 남았다"면서 "임기의 반이 좀 더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취임 이후 하루하루 열심히 산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처음 세운 목표에 크게 다다르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서로 간의 정과 자비심, 교감이 많이 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악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염려를 표한 스님은 "대사회적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해 선명상을 주창하고 나선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 확산으로 불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길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선명상 확산으로 자연히 불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불자가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포교와 전법에 임하겠다"게 밝혔다.

이날 원장스님은 종단 화합과 안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스님은 "먼저 내부가 화합되고 안정돼야 종단 역점사업도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면서 "선명상 보급과 불사를 약속했던 열암곡 마애불 세우기, 청년포교 전법불사 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의 미래를 이끌어갈 장학생을 선발 · 지원하는 장학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졌다. 8기 위원장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이 맡았다.

조계종, 장학위 8기 위촉…위원장 정묵 스님

12월 2일, 12명에 위촉장 수여
"장학금 빠짐없이 지급 최선"

승가교육진흥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12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11명의 제8기 장학위원회 스님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위원장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선본사 주지 혜안 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부장 승원 스님, 동국대 교수 정덕 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다. 장학위원회 간사는 당연직 위원인 교육원 교육부장 덕림 스님이 임명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 정묵 스님은 "위원 스님들과 잘 상의해서 장학금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덕암 대종사 원력, 계승하겠습니다"

덕암문도회, 열반 21주기 다례재
11월 29일 종로 법륜사 대불보전



태고종 제13·16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 중흥을 이끌었던 덕암당 흥덕 대종사의 원력과 유훈을 되새기는 법석이 마련됐다.

덕암문도회(회장 혜일 스님)는 11월 29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덕암당 흥덕 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추모다례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덕암문도회장 혜일 스님(호법원장)을 비롯해 총무부장 도성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 부·국장스님들과 덕암문도회 문도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스님은 덕암 대종사 영전에 향과 차를 올리며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의례위원장에 원명 스님

12월 4일, 의례위원회의서 호선
신임 위원에 성원 스님 위촉도

조계종 의례위원회는 12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9차 의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위원장으로 재호선했다. 의례위원장은 의례법 제5조 제5항에 의거, 의례위원회 호선으로 의결된다.

원명 스님은 "의례위원회를 종단의 무형 유산과 접목하는 등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새롭게 힘을 내 의례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의례위원에 원명 스님과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을 위촉했다.

임은호 기자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연력강화
- 근육통와환,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스님 건강, 편백나무로 지킨다

히노끼(편백)나무의 효능

이노 끼(편백)나무 열매가 있. 줄기, 뿌리중에서도 피톤치드 향이 가장 많고
열매를 구애 잘 건조시킨 후 집안 곳곳에 방양제모 사용 가능하며 아로마 테라피로 스트레스 완화.
피부질환 개선, 달서,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히노끼(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당의 욕조로 사용하면 좋고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색상, 침대, 쌀통, 발판, 장난감,
그리고 메계같은 경우는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되는데 그것은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일반 나무보다 5.5배 가량 많아 편백나무 숲에는 모기가 없다고 할 정도이며,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내뿜는 나무가 바로 편백나무로서 항균, 탈취, 공기정화의 효능이 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편백 숯침대
100% 참숯



편백침대


편백서랍장


편백찜기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